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404-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자녀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부모의 허용과 위험 인식

2026. 11. 4.

담당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 ichung@ewha.ac.kr

오수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e-mail | sukyung528@gmail.com

황아리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mail | arina29@naver.com

최광선 본부장
전화 | 02-3014-0099
e-mail | kschoi@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부모의 허용과 위험 인식

여론 속의 여輿론論

주요 내용

- 생성형 AI는 학습을 돕는 도구를 넘어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진다. OECD PISA 2025에 따르면 과제 작성에 AI를 거의 매일 사용한 학생의 과학 점수가 거의 사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28점 낮았다.[1] 미국에서는 유가족이 청소년들이 AI 챗봇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챗봇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2] [3] 아동·청소년의 AI 상담과 기업의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4]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26일 ~ 9월 1일 전국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생성형 AI 이용을 얼마나 허용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봤다. 학습에서는 개념 이해와 숙제 대행을, 상담에서는 사회적 관계 고민과 정신건강·자해·자살 문제를 구분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이용 목적에 따라 자녀의 AI 활용에 어디까지 선을 긋고 있는지 확인했다.

- 자녀가 생성형 AI를 쓴다고 아는 부모는 59%였지만 45%는 자녀의 AI 활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가장 큰 우려는 '부정확한 정보 수용'(39%)이었다.

- 부모들은 자녀가 AI로 정보를 검색하거나(92%) 숙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80%)은 대부분 허용했지만, 숙제를 전부 대신 작성하는 것은 20%만 허용했다. 반면 자해·자살 위기 상담은 37%가 허용해 정서상담에서는 경계가 상대적으로 흐렸다.

- 부모 자신의 업무 대행은 52%가 허용해 자녀의 숙제 대행(20%)보다 관대했고, AI 의존 성향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숙제 대행도 83%가 허용했다.

- AI 위험을 안내받은 부모는 자녀의 AI 이용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56%로 안내받지 않은 부모(46%)보다 높았고, 68%는 '허용하되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다.

1) OECD. (2026). PISA 2025 results (Volume I): Future-ready students.
2) Garcia v. Character Technologies, Inc., No. 6:24-cv-01903 (M.D. Fla., complaint filed Oct. 22, 2024).
3) Montoya v. Character Technologies, Inc., No. 1:25-cv-02907-STV (D. Colo., complaint filed Sept. 15, 2025).
4) 국민일보 이슈탐사팀. (2026. 2. 7.). 「AI와의 위험한 대화」. 『국민일보』

1 자녀의 AI, 부모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자녀의 생성형 AI 이용, 편리함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잃을까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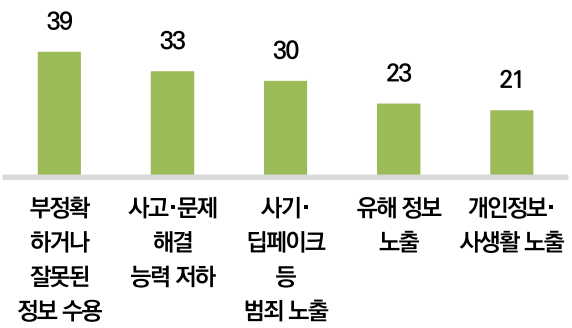
자녀의 생성형 AI 이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위험으로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수용'이 3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사고·문제해결 능력 저하' 33%, '사기·딥페이크 등 범죄 노출' 30%, '폭력적·성적·차별적 콘텐츠 등 유해 정보 노출' 23%,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 21% 순이었다.

반면 자녀의 AI 이용에서 기대하는 편익으로는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을 줄여 다른 활동에 쓸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AI 활용 능력을 미리 습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41%,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개념 이해와 학업 성취를 돕는다'는 응답은 33%였다.

부모들은 AI가 정보 탐색과 정리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미래에 필요한 활용 역량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사고·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부모들은 AI가 아이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은 기대했지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효율성은 기대하되, 사고까지 맡기지는 않으려는 태도였다.

자녀의 AI 이용에서 가장 우려하는 위험은 '부정확한 정보 수용' 3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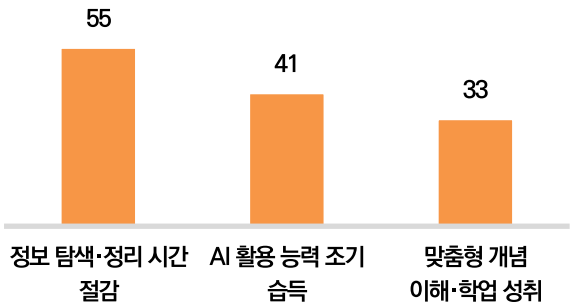


질문: 다음 중 자녀의 생성형 AI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위험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2개 선택), 상위 5개 항목 제시

자녀의 AI 이용에 기대하는 편익 1위는 '정보 탐색·정리 시간 절감' 55%

(단위: %)



질문: 자녀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익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2개 선택), 상위 3개 항목 제시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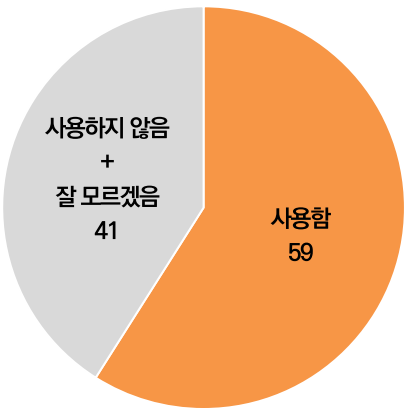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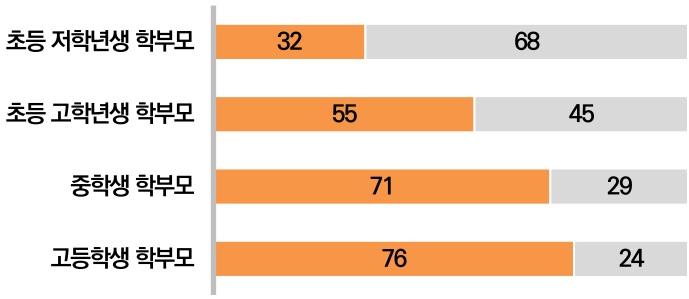
학부모 59%, 자녀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인지
하지만 학부모 중 45%는 자녀의 AI 활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자녀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 부모는 59%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68%가 '사용하지 않는다+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반면,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고학년 55%, 중학생 71%, 고등학생 76%로 높아졌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AI 이용을 인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학부모 59%, 자녀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인지
자녀의 AI 사용을 인지한다는 응답은 자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초등 저학년 32% → 고등학생 76%)

(단위: %)





질문: 귀하의 자녀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십니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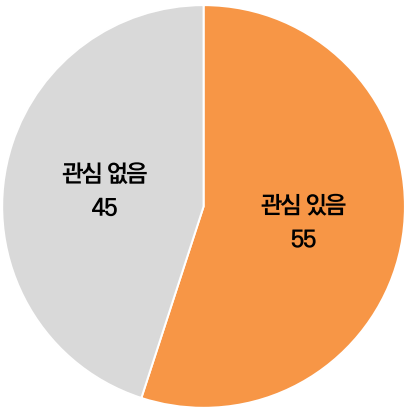
그러나 부모의 45%는 자녀의 생성형 AI 활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55%로, 부모의 절반 가까이는 자녀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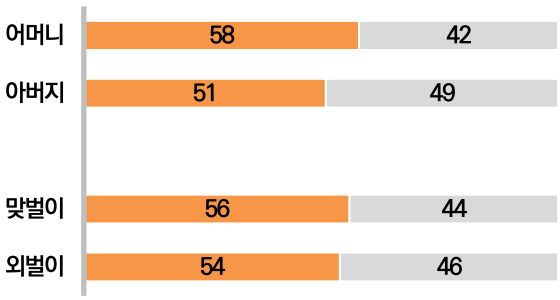
자녀의 AI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어머니 58%, 아버지 51%로, 어머니가 7%포인트 높았다. 맞벌이 부모는 56%, 외벌이 부모는 5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자녀의 AI 활용에 대한 관심은 맞벌이 여부보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AI 이용 여부에 대한 인지를 넘어, 부모가 활용 목적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어떤 활용을 위험하게 인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 45%, 자녀의 AI 활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자녀의 AI 활용에 관심 있는 어머니는 58%, 아버지는 51%

(단위: %)





질문: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나는 자녀의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자녀의 AI, 부모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자녀의 AI 이용, 개념 이해는 허용하지만 숙제 대행은 안 돼

자녀의 AI 이용을 허용하는 비율(매우 허용함+허용함)은 활용 목적별로 최소 20%부터 92%까지로 벌어졌다. 가장 관대한 허용 영역은 학습·진로였다. 정보 검색은 92%가 허용했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외국어 번역·학습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88%에 위험하다는 응답은 16%, 숙제의 개념 이해는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80%에 위험하다는 응답 25%, 진로 탐색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78%에 위험하다는 응답은 2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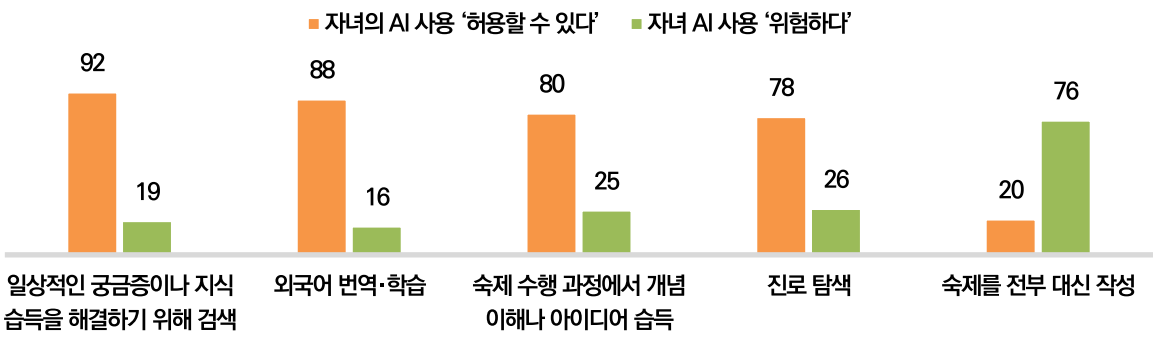
가장 엄격한 영역은 숙제 대행이었다. 숙제를 AI가 전부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데는 20%만 허용했고, 76%가 위험하다고 답했다. 활용 목적 가운데 허용이 가장 낮고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부모들은 AI가 자녀의 정보 탐색과 이해를 돕는 데는 관대하면서도,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데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숙제의 개념 이해 허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68%에서 고등학생 88%로, 숙제 대행 허용은 15%에서 29%로 함께 올랐다. 자녀가 자라도 두 항목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부모가 중요하게 본 것은 AI 사용 여부보다 자녀의 학습에서 AI에게 어떤 역할까지 맡길 것인가였다. 이해를 돕는 조력자로 활용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자녀가 직접 해야 할 사고와 숙제 수행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했다.

자녀가 숙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은 80%가 허용
반면 AI가 숙제를 전부 대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학부모는 20%에 그쳐

(단위: %)



질문: (각 목적별 자녀 AI 사용 허용)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목적별 자녀 AI 사용 위험성 인식) 귀하는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과 '위험' 인식을 묻는 질문은 별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둘의 합이 100을 넘거나 못 미칠 수 있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자녀가 자라도 AI의 숙제 대행을 허용하겠다는 응답 낮아
고등학생 학부모도 AI가 자녀의 숙제를 대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쳐

(단위: %)

자녀의 AI 사용 '허용할 수 있다'	사례수 (명)	숙제 수행 과정에서 개념 이해나 아이디어 습득	숙제를 전부 대신 작성
전체	**(1,000)**	**80**	**20**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250)	68	15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250)	76	17
중학교	(250)	90	19
고등학교	(250)	88	29

질문: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허용할 수 있다'(매우 허용함+허용함) 응답 제시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학습에는 분명한 선, 마음에는 흐릿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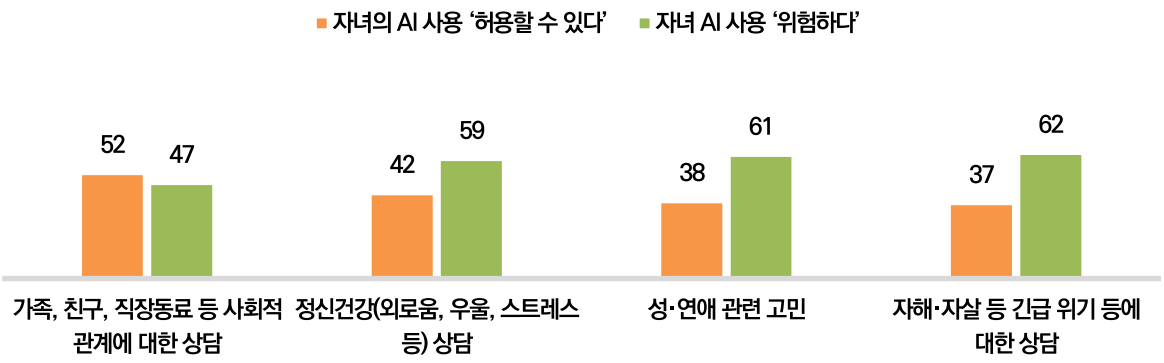
정서상담 네 가지 영역의 허용 비율은 평균 42%로, 위험하다는 응답 평균 57%보다 낮았다. 자해·자살 위기 상담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37%에 위험하다는 응답 62%, 성·연애 고민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38%에 위험하다는 응답 61%, 정신건강 상담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42%에 위험하다는 응답이 59%였다. 부모들은 잘못된 답변의 영향이 크거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담일수록 AI 활용을 제한했다.

친구·가족 등 사회적 관계 상담만 달랐다. 자녀의 AI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52%,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 48%로 의견이 팽팽했고, 위험하다는 응답도 47%로 정서상담 네 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밑돌았다. 일상적인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기대와, AI가 관계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서는 지점이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허용 경계'도 점점 더 넓어졌다. 사회적 관계 상담 허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41%에서 고등학생 60%로, 자해·자살 위기 상담은 27%에서 45%로 높아졌다. 상승 폭은 네 영역이 비슷해, 자녀가 자라면 상담의 민감도와 무관하게 허용 범위 전체가 함께 넓어졌다.

자녀에게 정서 상담을 위한 AI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학습 목적 대비 낮아
자해·자살 위기 상담에 대해서는 학부모 37%가 자녀의 AI 이용 허용

(단위: %)



질문: (각 목적별 자녀 AI 사용 허용)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목적별 자녀 AI 사용 위험성 인식) 귀하는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과 '위험' 인식을 묻는 질문은 별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둘의 합이 100을 넘거나 못 미칠 수 있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자녀가 자랄수록 정서 상담 목적의 AI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응답 확대
자해·자살 위기 상담 목적의 AI 사용 허용, 초등 저학년생 학부모 27% → 고등학생 학부모 45%

(단위: %)

자녀의 AI 사용 '허용할 수 있다'	사례수 (명)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담	자해·자살 등 긴급 위기 등에 대한 상담
전체	**(1,000)**	**52**	**37**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250)	41	27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250)	45	32
중학교	(250)	61	44
고등학교	(250)	60	45

질문: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허용할 수 있다'(매우 허용함+허용함) 응답 제시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자해·자살 위기 상담을 허용한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 부모가 51%로 대재 이상 부모의 35%보다 높았다. 반면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각각 46%와 64%로, 고졸 이하 부모가 더 낮았다(허용 비율에서 학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자해·자살 위기 상담이었다. 위험 인식에서는 네 개 상담 영역 모두에서 고졸 이하가 13~18%포인트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고졸 이하 응답자는 104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졸 이하 부모의 상대적으로 적은 AI 이용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해·자살 위기 상담 AI 허용, 고졸 이하 학력 학부모는 51%, 대학 재학 이상 학력 학부모는 35%

(단위: %)

	사례수 (명)	자해·자살 등 긴급 위기 등에 대한 상담에 자녀가 AI를 활용			
		허용할 수 있다 (매우 허용함+허용함)	허용할 수 없다 (전혀 허용하지 않음+허용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다 (전혀 위험하지 않음+위험하지 않음)	위험하다 (매우 위험함+위험함)
전체	**(1,000)**	**37**	**63**	**38**	**62**
부모 학력					
고졸 이하	(104)	51	49	54	46
대재 이상	(896)	35	65	36	64

질문: (각 목적별 자녀 AI 사용 허용)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목적별 자녀 AI 사용 위험성 인식) 귀하는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부모들은 숙제에서 AI가 개념 이해를 돕는 것과 수행을 대신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서는 그 경계가 상대적으로 흐렸다. 특히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자해·자살 문제의 AI 상담도 부모의 37%가 허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기 대응을 AI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AI 상담에서 어디까지를 보조적 활용으로 보고 어디부터 사람과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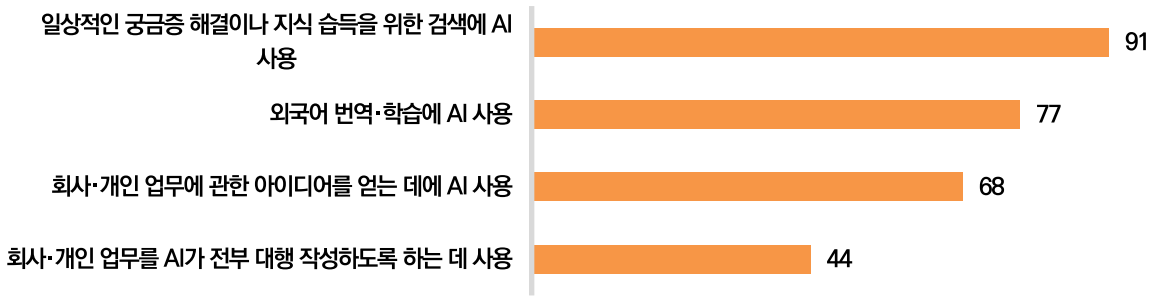
3 자녀에 대한 기준, 부모 자신의 AI 경험과 어떻게 맞물리나

내 업무 대행은 생산성, 자녀의 숙제 대행은 부정행위?
부모가 자신의 업무를 AI에 맡기는 것보다, 자녀가 자신의 숙제를 AI에 맡기는 것에 더 엄격

부모 자신도 생성형 AI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정보 검색에 사용한다는 응답은 91%, 외국어 번역·학습은 77%, 회사·개인 업무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사용한다는 응답은 68%였다. 회사나 개인 업무를 AI가 전부 대행하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는 응답도 44%였다.

학부모 91%, 정보 검색에 생성형 AI 사용 중

(단위: %)



질문: 다음은 귀하가 생성형 AI를 각 목적에 따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사용함 + 자주 사용함' 응답 제시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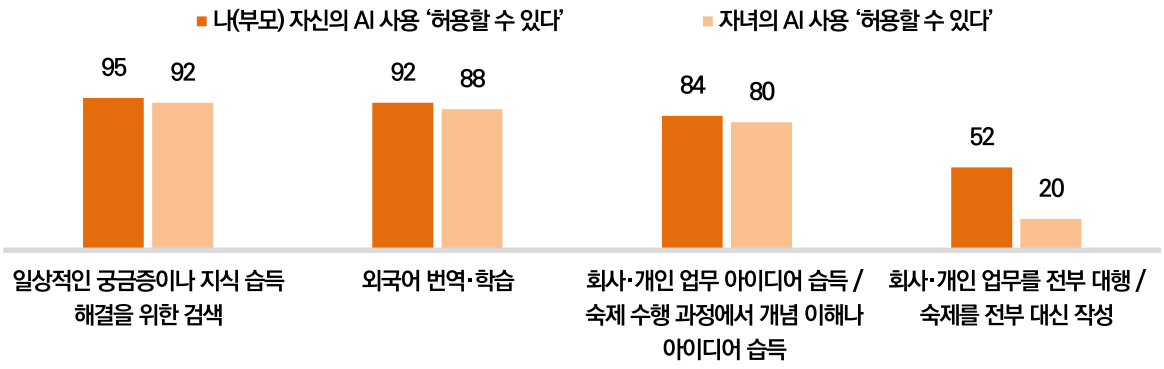
부모가 자신의 AI 이용을 허용하는 정도는 정보 검색 95%, 외국어 번역·학습 92%, 업무 아이디어 획득 84%, 업무 대행 52%였다. 반면 자녀가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도는 정보 검색 92%, 외국어 번역·학습 88%, 숙제의 개념 이해와 아이디어 획득 80%, 숙제 대행 20%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 자신의 업무 대행 허용도는 52%였지만, 자녀의 숙제 대행 허용도는 20%에 그쳤다는 것이다. 업무와 숙제라는 상황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성인인 자신보다 자녀의 AI 대행 활용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맞벌이 부모는 업무 아이디어 획득(76%)과 업무 대행(50%)에 AI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외벌이 부모는 각각 60%, 38%로 낮았다. 이는 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용 AI 활용 기회 자체가 많은 데 따른 차이로 보인다. 정보 검색(90%, 91%), 진로(43%, 41%), 관계상담(41%, 40%) 등 업무와 무관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맞벌이와 외벌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본인의 업무를 AI가 전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52%
반면 자녀의 숙제를 전부 작성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

(단위: %)



질문: (부모 본인) 다음은 귀하가 생성형 AI를 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녀)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 허용함 + 허용함' 응답 제시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업무용 AI 사용, 맞벌이 부모가 더 많아… 특히 업무 전부 대행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맞벌이 응답자는 50%

(단위: %)

'AI를 사용하고 있다' 응답	사례수 (명)	회사·개인 업무에 관한 아이디어 습득	회사·개인 업무를 AI가 전부 대행
전체	**(1,000)**	**68**	**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76	50
맞벌이 아님(외벌이 등)	(500)	60	38

질문: 다음은 귀하가 생성형 AI를 각 목적에 따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사용함 + 자주 사용함' 응답 제시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부모들은 자신의 업무를 AI에 맡기는 것보다 자녀가 숙제를 AI에 맡기는 데 훨씬 엄격했다. 성인의 업무와 자녀의 숙제는 목적과 책임이 달라 이를 단순한 이중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자녀의 AI 이용을 지도하려면, 부모 역시 AI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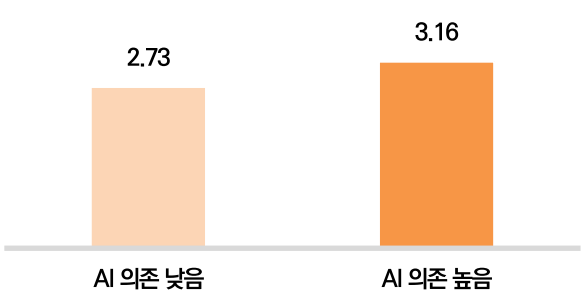
AI 의존 성향이 높은 부모, 자녀의 AI 이용에도 더 관대해

AI 의존이란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지해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사용을 줄이려 해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본 조사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인지적 몰두, 부정적 결과, 금단, 정서적 의존의 네 영역으로 측정했다(AI 의존은 14개 문항(4점 척도)의 평균이 3점 이상인 경우를 '높은 집단', 3점 미만을 '낮은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 척도에는 확립된 임상 기준점수가 없으므로 상위·하위 구분은 상대적 분류이며 진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AI 의존 성향이 높은 부모는 AI를 잘 다루지 못해서 의존하게 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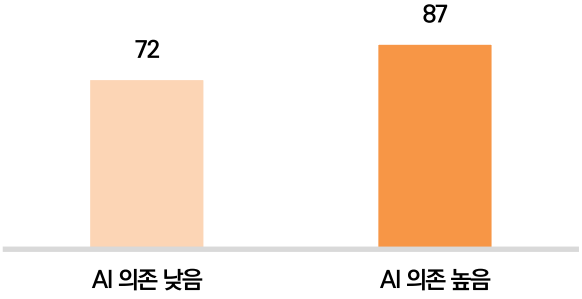
조사 결과, AI에 깊이 의존하는 부모는 AI에 서툰 부모가 아니었다. AI 의존 성향이 높은 부모(전체의 6%)는 스스로 AI를 잘 다룬다고 답한 점수가 4점 만점에 3.16점으로, 낮은 집단(2.73점)보다 0.43점 높았다(t=-8.05, p<.001, 95% CI [-0.53, -0.32], Cohen's d=0.87).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87%로 낮은 집단 72%보다 15%포인트 높았다. AI를 잘 다루고 신뢰할수록 의존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AI 의존이 높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AI 활용 효능감이 더 높고(3.16점), AI 정보 신뢰도(87%)도 더 높아

AI 활용 효능감(4점 만점) (단위: 점)



'AI 제공 정보 신뢰할 수 있다' (단위: %)



질문: (효능감) 나는 생성형 AI를 필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 자신이 있다 / 나는 생성형 AI의 새로운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신뢰도) 귀하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AI 의존도'는 '나의 의사결정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자주 받는다', '생성형 AI 없이는 일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등 14개 문항(4점 척도)의 평균값 산출 후, 평균 3점 미만은 '의존 낮음', 3점 이상은 '의존 높음'으로 구분함.
'AI 활용 효능감'은 '나는 생성형 AI를 필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 자신이 있다' 등 2개 문항의 평균값임. 4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음(4점 만점)
'AI 정보 신뢰도'는 4점 척도 응답 중 1, 2점을 '신뢰 낮음', 3, 4점을 '신뢰 높음'으로 구분함.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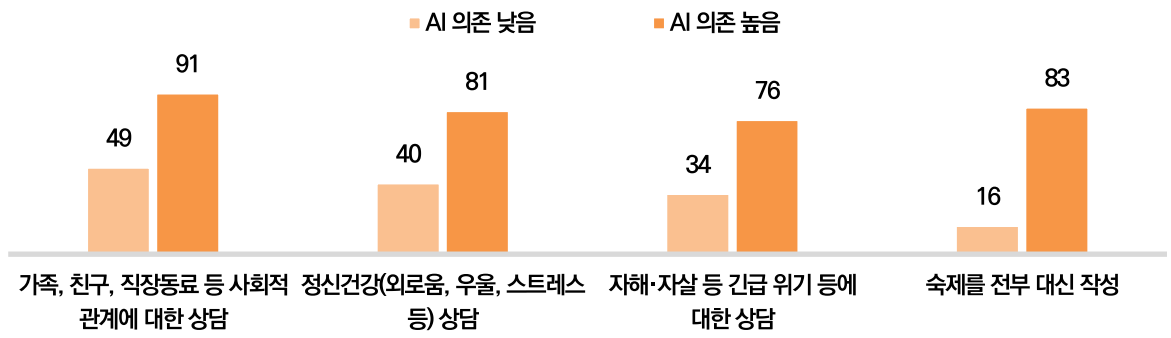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I 의존 성향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훨씬 넓게 허용했다. 자녀가 AI로 숙제를 전부 대신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응답은 의존이 낮은 부모 16%, 높은 부모 83%였다. 사회적 관계 상담은 낮은 부모 49%와 높은 부모 91%, 정신건강 상담은 40%와 81%, 자해·자살 위기 상담은 34%와 76%로 갈렸다. 반면, 위험 인식에서 의존이 높은 부모는 숙제 대행을 위험하다고 본 비율이 62%로 낮은 부모 76%보다 낮았다. 정서상담 네 영역에서는 AI 의존 수준이 높고 낮은 부모 간 위험 인식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모가 AI를 얼마나 가까이 두고 의존하는지가 자녀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이번 조사로 알 수 없으며, AI를 잘 다루고 신뢰하는 부모가 원래부터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같은 개방적 태도를 지녔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AI 의존도가 높은 부모의 83%, 자녀의 숙제를 AI가 대행하는 것을 허용

(단위: %)



질문: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 허용함 + 허용함' 응답 제시
'AI 의존도'는 '나의 의사결정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자주 받는다', '생성형 AI 없이는 일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등 14개 문항(4점 척도)의 평균값 산출 후, 평균 3점 미만은 '의존 낮음', 3점 이상은 '의존 높음'으로 구분함.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I를 잘 아는 부모보다, AI를 믿는 부모가 자녀의 AI 사용을 더 많이 허용해

부모 자신의 AI 경험은 자녀의 허용 기준과 맞물려 있었다. 가장 뚜렷한 영향은 부모의 AI에 대한 신뢰였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부모는 정보 검색 95%, 숙제 과정에서 개념 이해 84%, 창작활동 75%를 허용했고, 신뢰하지 않는 부모는 각각 84%, 70%, 63%였다. 정서적 상담에서도 사회적 관계 상담은 56%와 40%, 성·연애 고민은 41%와 28%, 정신건강 상담은 45%와 34%로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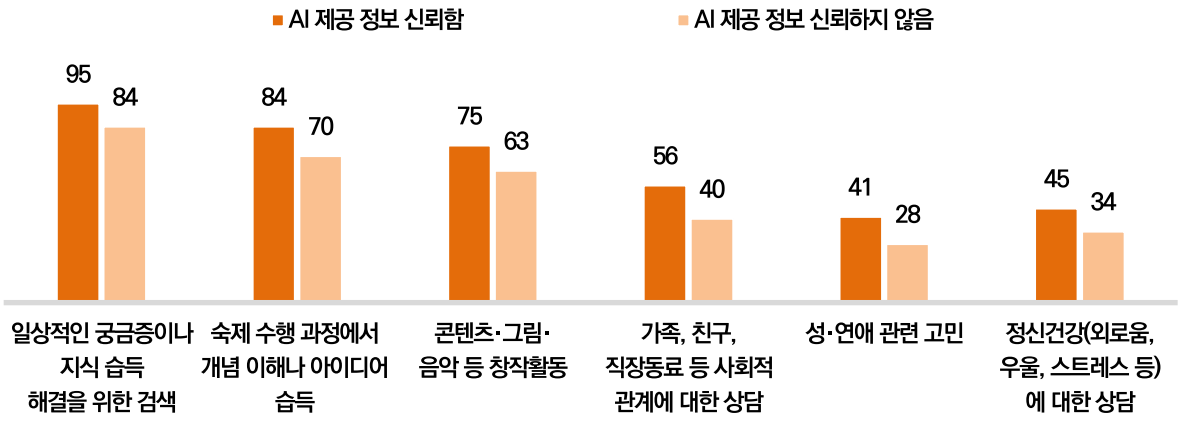
부모 스스로 평가한 AI 리터러시 수준은 작용 범위가 좁았다.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낮은 부모보다 정보 검색(95%, 88%), 외국어 번역·학습(92%, 84%), 창작활동(76%, 66%)을 더 많이 허용하였다. 정서적 상담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인식은 정보 검색과 외국어 번역 등 도구적 활용의 허용 범위와 관련됐지만, 정서상담의 경계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AI 리터러시 교육 경험의 영향은 가장 제한적이었다. 숙제 대행은 교육받은 부모의 27%가 허용해 받지 않은 부모(14%)의 두 배에 가까웠고, 창작활동도 75%와 69%로 다소 높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숙제 대행 허용률이 부모의 AI 신뢰도나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에게서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AI 교육 경험 여부뿐 아니라, 교육에서 어떤 활용 원칙과 내용을 다루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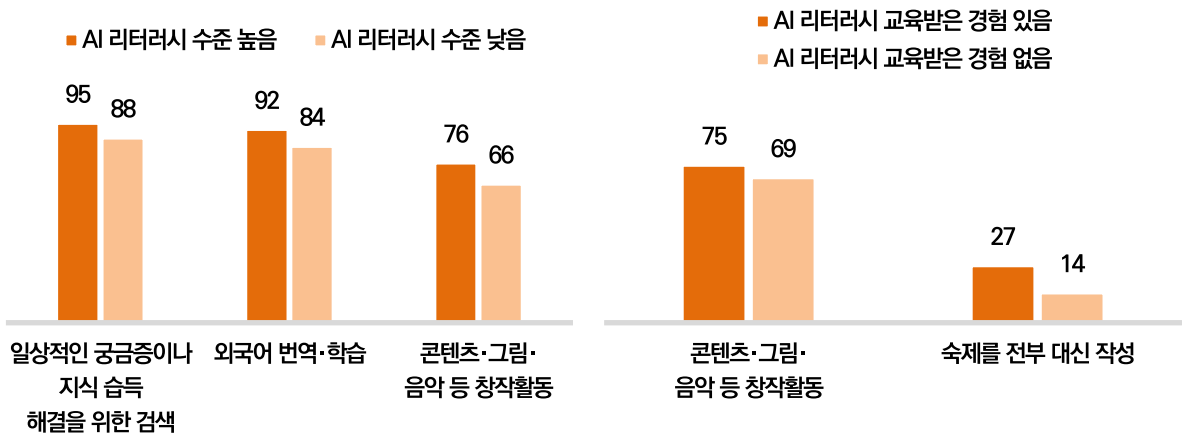
AI 정보를 신뢰하는 부모, 자녀의 AI 이용도 더 넓게 허용

(단위: %)



AI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부모, 검색·학습·창작활동 허용 더 높아
AI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부모 중 27%는 자녀의 숙제를 AI가 대행하는 것을 허용

(단위: %)



질문: 귀하의 자녀가 다음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이지 않는 아이의 AI 대화,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
실험조사 결과, AI 정보를 안내받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AI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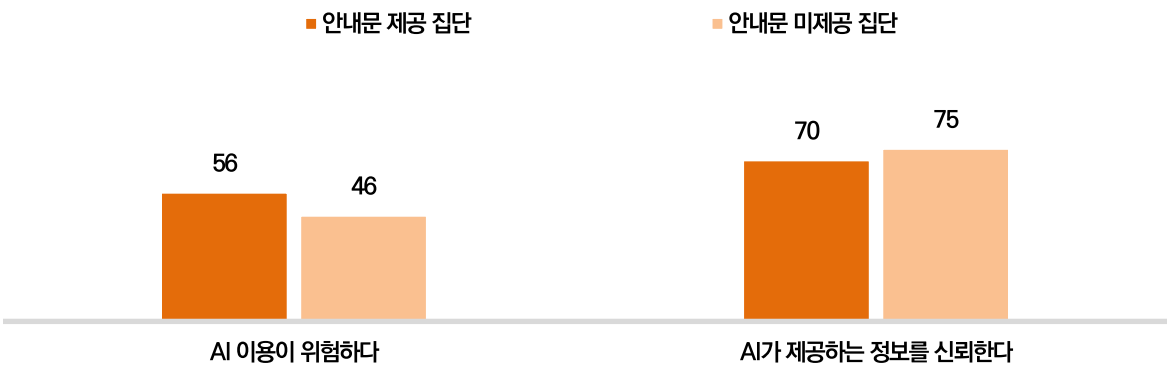
자녀가 AI와 주고받는 내용을 부모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AI 이용을 지도하려면 단순히 이용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활용 원칙과 편향된 정보의 판별,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는 부모 대상 AI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만 생성형 AI의 유용성과 위험,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담은 안내문을 제시한 뒤, 자녀의 AI 이용에 대한 위험 인식과 부모 자신의 AI 신뢰도에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했다.

안내문을 읽은 부모 중 자녀의 AI 이용이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은 56%로, 안내문을 읽지 않은 부모(46%)보다 10%포인트 높았고,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위험하다' 비율은 '위험하다'와 '매우 위험하다'를 합산한 비율이며, 집단 간 차이는 교차분석으로 검정. x^2=10.822, p<.001).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70%와 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짧은 안내문은 부모 자신의 AI 신뢰도에는 뚜렷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지만, 자녀의 AI 이용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이는 부모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이 자녀의 안전한 AI 이용을 지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조사 결과, AI 정보를 안내받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AI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

(단위: %)



(참고) 실험집단에 제시한 AI 리터러시 설명문

생성형 AI는 정보 탐색, 업무 및 학습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관점에 치우친 답변을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한 견해에 치우치지 않도록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위험 인식) 귀하의 자녀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도) 귀하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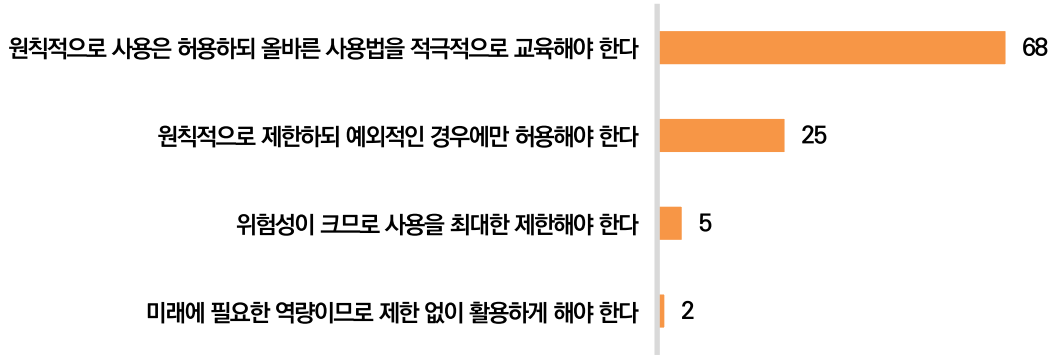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또한, 부모들이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의 AI 이용 지도 방향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 부모의 68%는 AI 이용을 허용하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모 다수는 AI 이용을 일률적으로 차단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이끄는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부모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은 사용 여부보다 지도 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녀가 AI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부모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출 때 자녀도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다.

학부모 68%, "AI 사용은 허용하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 교육해야"

(단위: %)



질문: 귀하는 아동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학부모 1,000명
조사기간: 2026. 8. 26. ~ 9.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숙제 대행은 안 되고, 위기 상담은 괜찮을까
AI에게 맡길 일과 사람의 판단·책임으로 남겨야 할 일 기준 세워야

이번 조사에서 부모가 중요하게 본 것은 자녀가 AI를 사용하는지보다, 학습 과정에서 AI에게 어떤 역할까지 맡기는가였다. 개념 이해를 위한 AI 활용은 80%가 허용했지만, 숙제 대행 허용률은 20%에 그쳤다. AI를 학습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자녀가 직접 해야 할 사고와 과제 수행을 대신하는 것은 경계한 것이다. 반면 부모 자신의 업무를 AI가 대신하는 것은 52%가 허용했다. 업무와 숙제는 목적과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부모들은 AI 대행 자체보다 누구의 어떤 과정을 대신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AI 정서상담에서는 우려와 허용이 교차했다. 부모들은 고민이 민감할수록 AI 상담을 더 위험하게 인식했지만, 사회적 관계·성 및 연애·정신건강·자해 및 자살 등 네 영역의 평균 허용률은 42%였다. 특히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자해·자살 위기 상담도 부모의 37%가 허용했다. 다만 이러한 허용이 위기 상담에 대한 대응을 AI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미인지는 이번 조사만으로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AI 활용을 영역별로 다르게 판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지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생성형 AI 시대의 자녀 지도는 '쓰게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에 맡길 일과 사람의 판단·책임으로 남겨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기업과 사회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마련해가야 한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중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6년 7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자녀 성별, 학교급, 부모 맞벌이 여부, 거주지역별 임의할당 후 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응답률	• 조사요청 19,005명, 조사참여 2,316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5.3%, 참여대비 43.2%)
조사일시	• 2026년 8월 26일 ~ 9월 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